

# 《梅妃傳》의 국내유입과 번역양상\*

유 희 준 · 민 관 동\*\*  
(경희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최근 필자는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 과제인 “한국에 소장된 중국고전소설과 희곡판본의 수집정리와 해제”를 수행하면서 “국내 번역된 중국고전소설 해제”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던 연구책임자 민관동에 의해 아단문고<sup>1)</sup>에 한글 필사본 《梅妃傳》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문언소설 《梅妃傳》의 국내 유입과 판본에 대한 기록과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한글 필사본 《梅妃傳》의 발견은 매우 귀중한 사료의 발굴일 뿐 아니라, 매비전의 국내 수용양상까지

---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 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 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2-A00128)

\*\* 주저자: 유희준(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교신저자: 민관동(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1) 雅丹文庫 : 재단법인 아단문고는 전 주식회사 빙그레 회장이며 현 김구재단 이사장인 김호연이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그는 모친 雅丹 강태영여사가 그동안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수집한 국보·보물·각종 문화재 등 89,150점을 가지고 2005년에 설립하였다. 현재 이사장은 아단 강태영 여사의 아들 김호연이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고전문헌 뿐만 아니라 중국고전문헌까지 구비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얼마 전 고려대 최용철에 의하여 발굴된 《종리호로》(중국에서 逸失된 소설로 조선시대 간행본)가 소장된 곳이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梅妃傳》의 발견을 통해 국내 소장되어 있는 번역본 중국소설의 목록도 다시 정리하게 되었다. 본 토대연구 프로젝트팀의 수집결과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번역본 중국소설은 《梅妃傳》을 포함해서 총 72種<sup>2)</sup>으로 확인된다.

중국소설사에서 唐 玄宗을 대상으로 쓰여진 작품으로는 樂史의 《楊太真外傳》, 秦醇의 《驪山記》와 《溫泉記》, 무명씨의 《梅妃傳》이 등이 있는데, 이들 작품들은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치스러운 궁중생활을 묘사하거나 양귀비와 매비 사이의 투기를 묘사한 작품이 있는데<sup>3)</sup> 이 중 양귀비와 매비 사이의 투기를 묘사한 작품이 바로 《梅妃傳》이다.

이번에 발굴된 《梅妃傳》은 宋代 무명씨의 傳奇小說로 唐 玄宗과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梅妃는 양귀비가 현종의 총애를 입기 전에 사랑하던 여인으로 현종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다. 梅妃에 관한 故事가 正史에 기록되지 않고 주로 野史나 秘史에만 전해지고 있어, 후대에 만들어진 인물이라는 설도 있긴 하다. 하지만 매비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그 진위여부를 정확히 가려 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위키백과를 찾아보면 매비에 대해 江采蘋이라고 소개하며 710년부터 756년까지 살았다

- 
- 2) 列女傳, 古押衙傳奇(無雙傳), 太平廣記(諺解), 太原志(太原誌), 吳越春秋, 梅妃傳, 紅梅記, 薛仁貴傳, 水滸傳, 三國志演義, 殘唐五代演義, 大明英烈傳, 武穆王貞忠錄(大宋中興通俗演義), 西遊記, 列國志, 包公演義(《龍圖公案》번역), 西周演義(封神演義), 西漢演義, 東漢演義, 平妖記(三遂平妖傳), 仙真逸史(禪真逸史), 隋煬帝艷史, 隋史遺文, 東度記, 開闢演義, 孫龐演義, 唐晉[秦]演義(大唐秦王詞話), 南宋演義(南宋志傳), 北宋演義(大字足本北宋楊家將), 南溪演談(義), 剪燈新話, 聘聘傳(娉娉傳), 型世言, 今古奇觀, 花影集, 後水滸傳, 平山冷燕(《第四才子書》), 玉嬌梨傳, 樂田演義, 錦香亭記(《錦香亭》), 醒風流, 玉支磯(《雙英記》), 畫圖緣(《花天荷傳》), 好逑傳(《俠義風月傳》), 快心編(醒世奇觀), 隋唐演義, 女仙外史(《新大奇書》), 雙美緣(駐春園小史的 翻案), 麟鳳韶(《引鳳簫》), 紅樓夢, 雪月梅傳, 後紅樓夢, 粉粧樓, 合錦迴文傳, 續紅樓夢, 瑤華傳, 紅樓復夢, 白圭志(第八才子書), 補紅樓夢, 鏡花緣(第一奇諺), 紅樓夢補, 綠牡丹, 忠烈俠義傳, 忠烈小五義傳, 繡像神州光復志演義, 珍珠塔(九松亭), 再生緣傳(《繡像繪圖再生緣》), 梁山伯傳, 千里駒, 閒談消夏錄.

- 3) 최용철 외, 《중국소설사의 이해》, 학고방, 75쪽 참조.

고 정확히 생졸년을 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梅妃傳》을 중심으로 매비의 생애를 소개하긴 했지만, 이미 唐代부터 매비에 대한 전설이 유행하고 있었고, 莆田지방에 전해지는 《江氏族譜》에도 매비와 그녀의 아버지 江仲遜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매비는 실존했던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겠다. 매비가 등장하는 문학 작품들을 살펴보면 우선 唐人의 小說로는 《明皇雜錄》·《高力士外傳》·《開元天寶遺事》등이 있으며, 北宋後期 李綱의 〈梅花賦〉와 晁說之의 〈枕上和圓機絕句梅花十有四首〉등 詩 두 편에서도 매비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어 있다.<sup>4)</sup>

그 후 明代戲曲 傳奇로 吳世美의 《驚鴻記》라는 작품이 등장하는데 주로 唐明皇과 梅妃 그리고 楊貴妃의 삼각관계를 중심 내용으로 다루었으며, 여자 주인공인 ‘正旦’의 역할은 양귀비가 아닌 매비가 맡았다.<sup>5)</sup> 또한 수당의 역사소설을 담은 〈隋唐演義〉는 明清代에 쓰여 졌지만 이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다. 비록 이런 작품들에서 매비에 대해 언급 해 주었지만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다룬 작품이 40여종이 넘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많이 부족한 숫자이다. 국내에서의 연구를 보더라도 2005년 劉淑雙이 강남대학교 석사논문으로 《〈인현왕후전〉과 〈매비전〉 대비 연구》에 대해 쓴 것이 유일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梅妃傳》에 대해 연구된 논문으로는 陳春陽의 〈鄭樵《通志二十略》中的《梅妃傳》素材〉(福建師範大學福清分校學報, 2010年 第4期), 章培恆의 《〈大業拾遺記〉《梅妃傳》等五篇傳奇的寫作時代》(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8年 第25卷 第1期), 程杰의 〈關於梅妃與《梅妃傳》〉(南京師範大學大學院學報, 2006.9 第3期)등이 있다. 〈鄭樵《通志二十略》中的《梅妃傳》素材〉에서는 《梅妃傳》이 어떻게 《通志二十略》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다루었고, 《〈大業拾遺記〉《梅妃傳》等五篇傳奇的寫作時代》에서는 《梅妃傳》을 포함한 5편의 傳奇 작품의 창작시기를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關於梅妃與《梅妃傳》〉에

4) 程杰, 〈關於梅妃與《梅妃傳》〉, 《南京師範大學大學院學報》, 2006.9 第3期, 125쪽.

5) 오수경 등 외 지음, 《중국 고전극 읽기의 즐거움》, 민속원, 2011, 271~272쪽.

서는 秘書나 문학작품에 등장한 매비와 《梅妃傳》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른 논문에 비해 매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해 주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梅妃傳》의 창작시기와 작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국내 소장된 《매비전》의 판본 현황과 각종 문헌기록을 근거로 《매비전》의 국내유입 정황과 유입시기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또 아단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한글 필사본 《梅妃傳》을 통해 번역 양상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梅妃傳》의 작가와 내용

### 1) 창작시기와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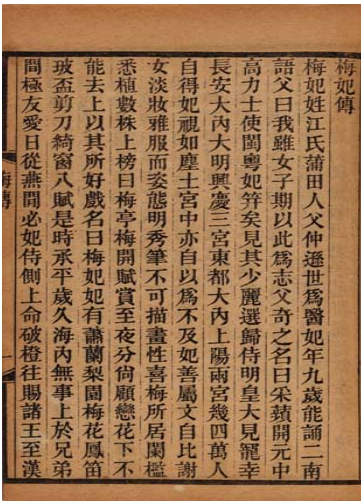


그림 1 梅妃傳 원전-上海廣益書局本

《梅妃傳》은 宋代 傳奇小說로 작가는 정확히 고증되지 않았다. 元末 明初의 陶宗儀가 편찬한 涵芬樓本《說郛》卷38에 최초로 보이고, 다음으로는 明代 顧元慶의 《顧氏文房小說》에 보이는데 모두 편찬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 후 清代 陳蓮塘의 《唐人說薈》本 제11집에 《梅妃傳》을 수록하고 曹鄴이撰했다고 기록하였다. 그 외에 《唐朝小說大觀》과 魯迅의 《唐宋傳奇集》에 《梅妃傳》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金鋒의 《中國歷代秘書集成·隋唐卷》(內蒙古人民出版社, 2001), 段

啓明 외 《唐宋傳奇》(中國少年兒童出版社, 2003), 徐哲身 《中國秘史大系》(中國檢察出版社, 1998), 張友鶴 《唐宋傳奇選》(人民文學出版社, 1982) 등은 古語에 校註를 달아 편찬한 것들이다. 現代漢語로 편찬한 경우

는 柯岩의 《中國短篇小說卷》이 있고,<sup>6)</sup> 국내에서는 전인초·김장환 공저의 《중국문언소설단편소설선》<sup>7)</sup>이 있는데, 《梅妃傳》원문에 주석을 달아 출판하였다.

《梅妃傳》의 창작시기는 책 末尾에 있는 跋文을 보고 추정할 수 있다.

漢이 막 흥성했을 때 《春秋》를 숭상했고, 독서하는 사람들도 《公羊傳》과 《谷梁傳》을 믿어 서로 그들의 高低를 쟁론했지만, 《左傳》만이 숨어져 있으면서 알려지지 않았다가 마지막에야 드러났다. 대개 고서들은 오랜 시간 유전되어 세상에 남겨진 것들이 많다. 지금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매화를 들고 있는 미인도는 호가 梅妃로 唐明皇 때의 사람이지만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다. 당명황이 양귀비에게 빠져 자리를 잃게 되었기 때문에 문인들은 양귀비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을 좋아한다. 梅妃는 단지 아름다운 嬪妃일 뿐 양귀비와 비교하면 이름 없는妃 일뿐이다. 이 전기는 “朱萬卷”이라 불리는 朱遵度 집에서 얻은 것이다. 大中 2년 7월 필사된 것인데, 글자 또한 매우 아름답지만, 문장에 때론 속된 표현이 있다. 안타까운 점은 역사서에 이러한 내용이 산실된 것이다. 내가 약간의 수식을 더해 원래의 말을 보존하려 하였지만 사실 원서에 이르지 못함이 있다. 단지 葉少蘊과 내가 이 문장을 얻어 후세에 전하니 어찌면 이 책을 근본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 이 문장의 내원이 이리함을 글로서 남기는 바이다.<sup>8)</sup>

이 跋文의 내용을 보면 발문을 쓴 사람은 朱遵度の 집에서 이 《梅妃傳》을 구해서 필사하여 葉少蘊(葉夢得)과 함께 이 책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쓰여진 시기는 大中 2年(848) 7월 이전이 된다. 朱遵度는

6) 劉淑雙, 《〈인현왕후전〉과 〈매비전〉 대비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11쪽 참조.

7) 전인초·김장환, 《중국문언소설단편소설선》, 학고방, 2001.

8) 汉兴, 尊《春秋》灵, 诸儒持《公》、《谷》先角胜负, 《左传》独隐而不宣, 最后乃出。盖古书历久始传者极众。今世图画美人把梅者, 号梅妃, 泛言唐明皇时人, 而莫详所自也。盖明皇失邦, 咎归杨氏, 故词人言之。梅妃特嫔御擅美, 显晦不同, 理应尔也。此传得自万卷朱遵度家, 大中二年七月所书, 字亦媚好。其言时有涉俗者。借乎史逸其说。略加情润而曲循旧语, 惧没其实也。惟叶少蘊与余得之, 后世之传, 或在此本。又记其所从来如此。

南唐의 藏書家로 정확한 생졸년은 알 수 없다. 跋文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언급은 없지만 葉少蘊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보아 같은 시대의 사람일 것이다. 葉少蘊은 《避暑錄話》<sup>9)</sup>를 지은 사람으로 이름은 夢得으로 1077년에 출생하여 1148년까지 살았다. 號는 石林으로 吳縣(지금의 江蘇 蘇州)사람이고, 紹聖4년(1097)에 진사가 되어 徽宗때 翰林學士를 지냈으며 高宗때 戶部尙書에 올랐다.

이 跋文에 따르면 창작시기는 적어도 晚唐으로 보는 견해와 南宋으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작가에 대한 說 역시 창작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데 《梅妃傳》은 누가 썼는지 정확히 고증되지는 않지만 창작시기에 따라 두 가지 說이 있다.

첫 번째는 唐末 曹鄴의 작품이라는 說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清代 陳蓮塘의 《唐人說薈》에서는 曹鄴이 撰했다고 기록하였고, 四川大學校 社學研究所所長 古木 역시 《中國歷代名女人之謎》에서 曹鄴의 작품이라고 했다. 이 說은 跋文에 의해 《梅妃傳》이 朱遵度的 집에서 발견되었고, 大中 2年 7월에 쓰여졌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적어도 唐末의 藏書家 朱遵度和 동시대 사람의 작품일 것이라는 견해인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두 번째는 南宋 사람의 작품이라는 說이다. 魯迅은 《小說史略》에서 跋文의 내용 중 北宋末의 葉夢得을 언급한 점을 운운하면서 南宋 사람의 작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梅妃傳》1권도 역시 지은이가 없다. 대개 당시의 그림에 매화를 들은

9) 宋代 雜俎小說集으로 葉夢得(1077~1148)이 편찬했다. 《直齋書錄解題》와 《宋史·藝文志》小說家類에 《石林避暑錄》2권이 著錄되어 있고, 《四庫全書總目》雜家類에 《避暑錄話》라고 기재되어 있다. 明 嘉靖 項氏宛委山堂刊本 4卷과 《稗海》《津逮秘書》《學津討原》등의 叢書에 2卷이 들어있다. 北宋의 雜事를 폭넓게 수집하여 《避暑錄話》를 편찬하였기 때문에 사료로서의 가치도 지닌다. 국내 유입 기록은 정확하지 않지만 韓致齋(1765~1814)의 《海東繹史》제27권 〈文房類〉에 《避暑錄話》의 내용이 소개되어<sup>1)</sup> 있는 것을 보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는 유입되었을 것이다. 한치윤이 본 판본이 어떤 판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국내에는 《稗海》본이 남아있다.

미인을 梅妃라 불렀던 것을 보고, 되는 대로 唐明皇 때의 사람일 것이라 말한 듯하다. 그래서 이 傳을 지었다. 江씨 성에 이름이 采蘋인 소녀가 궁궐에 들어갔다가 太眞의 질투로 다시 쫓겨나 안록산의 난을 만나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跋文에 의하면 이 傳은 大中 2년에 씌여진 것으로 萬卷 朱遵度的 집에 있었는데 지금은 葉少蘊이 나에게 주어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말미에 서명을 해놓지 않았지만 대개 본문을 지은 사람일 것이다. 스스로 葉夢得과 동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南渡 전 후에 씌여졌을 것이다. 현행본 가운데 어떤 것은 당의 趙鄴이 지은 것이라 제하고 있으나 역시 明代 사람들이 근거 없이 덧붙인 것이다.<sup>10)</sup>

郭箴一도 《中國小說史》(常務印書館, 1974)에서 《梅妃傳》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南宋 사람의 작품이라 언급했으며, 그 외 許道勛과 趙克堯가 쓴 《唐玄宗傳》(人民文學出版社, 2003)에 언급한 내용을 보면 梅妃와 같은 고향사람인 李俊甫가 쓴 《莆陽比事·梅妃入侍》는 《梅妃傳》의 남본이라고 하면서 〈梅妃入侍〉의 跋文의 내용을 통해 《梅妃傳》의 작가를 남송 사람으로 추정하였다. 국내 학자 전인초 역시 宋代 사람의 作이라고 보고 있다.<sup>11)</sup> 이 說은 跋文을 쓴 사람이 비록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작가일 것으로 추정하고, 葉少蘊과 동시대 사람일 것으로 추정해서 《梅妃傳》의 작가를 南宋代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비록 작가에 대한 정확한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필자는 첫 번째 說을 동조하는 입장이다. 跋文을 쓴 사람이 이 작품을 필사하고 글자를 수정했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이 창작한 완성된 작품을 보고 교정을 본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작가라고 볼 수는 없다. 跋文이 의도적으로 唐代 사람으로 작가를 가탁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확히 대종 2년 7월에 필사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으로 보아 확실히 그 시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판본이 南宋 때 다듬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晚唐

10) 魯迅 著, 조관희 역, 《중국소설사》, 소명출판, 2004, 262쪽.

11) 劉淑雙, 《〈인현왕후전〉과 〈매비전〉 대비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12쪽~13쪽 참조.

의 藏書家 朱遵度的 집에서 발견된 작품을 底本으로 삼았으니, 원작자는 따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梅妃傳》의 원작자가 曹鄴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唐人說薈》本에 편찬자로 언급이 되어 있고, 曹鄴을 작자로 보고 있는 학자도 있기 때문에 曹鄴이 아니라고도 말 할 수 없다. 간단히 그의 생애만 살펴보면 曹鄴(816~?)은 晚唐의 저명한 詩人이라고 한다. 字는 鄴之로 晚唐 大中 때의 陽朔사람이라고 전해진다. 大中 4年(850)進士에 급제해, 齊州(山東省 濟南)推事등을 역임하고 天平節度使의 幕府생활을 한다. 咸通(860~874)초에, 太常博士와 祠部郎中·洋州(陝西省 洋縣)刺史·吏部郎中을 지내다가 咸通9年(868)사임하고 桂林에 머물면서 평생 詩作에 몰두했다고 한다. 그의 작품으로는 《曹祠部詩集》2권이 있다고 전해진다.<sup>12)</sup>

만약 첫 번째 說에 따라 曹鄴이 작자라고 본다면 曹鄴이 816년에 태어나 850년 大中 4년에 進士가 되었고, 책이 쓰여진 시기가 大中 2年 7月임을 감안한다면 《梅妃傳》은 848년 7월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때 조업의 나이는 32세였을 것이다. 작자 曹鄴이 저명한 詩人이었기 때문에 《梅妃傳》안에 아름다운 운문을 써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 2) 《梅妃傳》의 내용

《梅妃傳》의 내용을 보면, 환관 高力士가 궁녀를 선발하기 위해 남방에 갔다가 유교교육을 잘 받은 의원의 딸 강채빈을 보고는 궁으로 데리고 온다. 唐 玄宗은 특별히 그녀를 사랑하여 매화를 좋아하는 그녀를 ‘梅妃’라 부르게 된다. 하지만 현종이 楊玉環의 미모에 빠져 여도사로 만들었다가 결국 취하여 귀비로 봉하자, 매비는 上陽宮으로 쫓겨나게 된다. 매비는 현종의 사랑을 되찾고자 〈樓東賦〉를 써서 올리지만 결국 양귀비에 발각되어 수포로 돌아간다. 현종은 매비를 잊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양귀비에게 빠져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다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 현종은 양귀비와 함께 난을 피하지만, 매비는 전란 중에도 궁에 남아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전란을 피해 도망

12) 寧稼豪, 《中國文言小說總目提要》, 齊魯書社, 1996, 114쪽.



그림 2 전해지는 매비초상

을 간 현종은 신하들의 강요로 양귀비를 賜死하게 된다. 궁에 돌아온 현종은 매비와의 옛 정을 잊지 못하여 매비를 찾으려 수소문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우연히 꿈에 매비가 나타나 자신이 이미 죽어 매화나무 아래 묻어졌음을 알려준다. 현종은 바로 매비의 시체를 찾아 妃의 예로서 다시 장사지내고 제문을 써서 매비를 회고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梅妃에 대한 이야기는 正式 歷史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어쩌면 宋代에 양귀비에 대한 義憤의 감정으로 만들어진 허구의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학자도 있다.<sup>13)</sup> 唐代 사람들에게는 楊玉環에 대한 동정이 일었던 반면 宋代에 들어서면 오히려 나라를 위함에 빠트린 것을 그녀의 잘못으로 몰아넣는 분위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와 대립하는 인물인 梅妃를 형상화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說은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작가가 매비 형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역사상 생존했던 인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위키백과의 내용<sup>14)</sup>을 보면 매비는 분명 실존했던 인물이었고, 程杰 역시 그의 논문 〈關於梅妃與《梅妃傳》〉(南京師範大學大學院學報, 2006.9 第3期)에서 梅妃에 대해 남겨진 詩와 다른 작품 등을 소개하면서, 또한 지금 전해지는 《梅妃傳》跋文에 있는 문장 중 “今世圖畫美人把梅者, 號梅妃, 泛言唐明皇時人, 而莫樣所自也”라는 말을 인용하여 梅妃가 실존 인물이었음을 주장했다.

13) 《中國古典小說鑑賞辭典》, 中國展望出版社, 1981년, 600~602쪽 孟蓬英 解題.  
 14) 매비에 대해 江采蘋이라고 소개하며 710년부터 756년까지 살았다고 정확히 생졸년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미 唐代부터 매비에 대한 전설이 유행하고 있었고, 莆田지방에 전해지는 《江氏族譜》에도 매비와 그녀의 아버지 江仲遜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고 한다.

《梅妃傳》은 唐玄宗과 梅妃, 그리고 楊貴妃의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다. 梅妃와 楊貴妃 간의 모순과 충돌 등 비참한 결말을 통해 궁정생활의 암흑과 부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封建 皇帝의 一夫多妻制에서 비롯되는 젊은 여인들의 청춘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상황을 제시하여 一代興亡의 역사적 교훈까지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는 梅妃와 楊貴妃 唐明皇 세 사람의 각자 특색 있는 예술 형상을 성공적으로 그려냈다. 작가는 梅妃의 원망과 슬픔을 묘사하여 사람들에게 동정을 일으켰으며, 楊貴妃가 사악하고 표독한 질투심을 발휘하다가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는 부분도 동정할 만하다. 唐明皇의 음란하고 잔혹한 性情을 그려냈지만 사랑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은 화는 나지만 가련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작가는 이러한 인물들의 특징적인 성격을 제시할 때 모순 되면서도 통일된 성격의 복잡성을 파악하여 보여주려고 하였다. 그래서 인물 형상이 살아있는 듯 더욱 찡찡하게 다가온다.

梅妃는 “姿態明秀”하고 성격이 “柔緩”했다. 작가는 梅妃가 황제의 총애를 받았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과 총애를 잃었을 때의 처량한 상황을 묘사해서 그녀의 현실이 비극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梅妃가 처음 입궁했을 때 궁에는 “4만 여명”의 궁녀가 있었으나 현종이 “매비를 얻은 후에는 먼지 보듯 했다(自得妃, 視如塵土)” 매비의 위치가 하루아침에 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능가하게 된 것이다. 매비가 황제의 총애를 받을 때는 형제간의 우애도 깊었다. 연회가 있을 때면 반드시 곁에 두었을 정도였다. 하루는 연회에서 황제가 梅妃에게 탕자열매를 잘라 王(제후)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다. 漢王이 장난으로 그녀의 신발을 밟자, 그녀는 바로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고 “신발의 진주장식을 다시 정리하고 가겠다”는 전갈만 보냈다. 한참이 되어도 매비가 오지 않자 황제는 직접 매비를 찾아갔고, 매비는 옷을 벗어 황제를 맞이하였다. 이런 장면을 보면 梅妃는 아름답지만, 성격은 오히려柔하면서 강한 성격을 드러낸다. 그러나 楊貴妃가 궁에 들어왔을 때 서로 총애를 두고 싸우게 되고 그녀의 강한 성격도 양귀비에게는 대적할 수가 없었다.

매비가 총애를 잃은 후에도 비교적 강렬하게 자신의 행복을 다시 찾고자 노력하는 대목이 나온다. 唐明皇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千萬金을 써서 高力

士에게 司馬相如가 〈長門賦〉를 썼던 것처럼 하기위해 才子를 구해주길 원하지만 高力士는 오히려 楊貴妃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터라 적당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梅妃는 스스로 〈樓東賦〉를 쓰게 된다. 楊貴妃가 玄宗과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梅妃의 마음은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몰랐다. 물론 사실상 楊貴妃가 없었다 하더라도 李貴妃와 王貴妃가 있어 서로 총애를 다투었을 것이다. 封建皇帝가 많은 妃를 두고 음란한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황제가 한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궁중생활의 암흑과 부패는 梅妃의 비극적인 운명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만들었다. 楊貴妃에게 荔枝를 바치기 위해 남쪽 지방에서 사신이 왔다는 부분의 묘사는 梅妃의 비극적 운명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황제는 비밀리에 珍珠 10斗를 하사하지만 매비는 받지 않고 자신이 지은 詩와 함께 황제에게 되돌려준다. 황제가 詩를 받고는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一斛珠〉라 이름 붙인다. 이것은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한 것으로 매비는 절망하게 된다. 그녀는 더 이상 황제가 자신의 옆에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지 않게 된다. 그래서 황제의 비밀 선물을 거절한 것이다.

梅妃의 대립된 형상인 楊貴妃는 이 작품에서 그녀의 가족이나 세력, 唐明皇의 영향 등에 대해 묘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高力士가 “그녀의 세력을 두려워하고 있었다(且畏其勢)”라고 한 부분만 보더라도 그녀의 지위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唐玄宗이 몰래 梅妃를 불렀을 때 楊貴妃가 화를 내며 唐明皇에게 수치를 주는 장면에서 楊貴妃의 지독한 성격을 드러내 준다. “여기 술잔과 접시가 흩어져 있고, 침상아래 여자의 신발이 떨어져있는데, 폐하께서 어제 누구와 잡자리를 드셨길래 이렇게 해가 뜨는데도 아침 조회에도 못나가셨어요?”<sup>15)</sup> 라고 하였다. 梅妃가 〈樓東賦〉를 지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현종에게 “江妃는 저속하고 천해요. 隱語를 써서 자신의 원한을 드러내니 차라리 죽이세요”<sup>16)</sup>라고까지 하였다. 이 두 사건을 보더라도 양귀비는 가족의 세력과 황제의 총애를 뒤에 지고 제멋대로 행동했음을 알 수 있다.

15) 太真大怒曰：“肴核狼籍，御榻下有妇人遗舄，夜来何人侍陛下寝，欢醉至于日出不视朝？陛下可见群臣。妾止此阁俟驾回”

16) 太真闻之，诉明皇曰：“江妃庸贱，以度词宣言怨望，愿赐死”上默然

唐明 皇은 소설의 남자주인공이다. 작가는 그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동정의 눈길로 바라본다. 唐玄宗이 자신의 침소에 몰래 梅妃를 불러들였을 때 楊貴妃가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현종은 “옷옷을 걸치고 매비를 안아 병풍 뒤로 숨겼다.”<sup>17)</sup> 양귀비가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돌아간 후 환관이 이미 梅妃를 東宮으로 되돌려 보낸 사실을 알고는 진노하여 포악하게 환관을 죽여 버린다. 하지만 비록 대국의 皇帝였지만 애정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원래 梅妃를 사랑했지만 楊貴妃의 방해로 梅妃를 몰래 불러 만나야 했으며, 楊貴妃가 와서 소란을 피우는 상황에서 고개를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상황은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예이다. 梅妃가 〈樓東賦〉를 지었을 때 역시 楊貴妃는 梅妃를 죽이라고 했지만 玄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권력을 손에 거머쥔 것 같은 황제였지만 楊貴妃의 앞에서만은 찢찢매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마도 정치적으로 영켜있는 勢力 때문이었을 것이다.

작가는 더 이상 많은 묘사를 하지 않고 단지 “후에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 서쪽으로 피난했으며 太眞을 사사했다”<sup>18)</sup>라는 역사적 사실만을 언급했을 뿐이다. 안사의 난 이후에 唐玄宗은 梅妃를 찾았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꿈에 梅妃가 나타나 자신이 묻혀있는 곳을 알려주어, 梅妃의 시신을 찾아 다시 妃의 禮로서 葬事지내고 친히 祭文을 써서 梅妃의 혼령을 위로 하였다. 이런 묘사는 唐玄宗의 梅妃에 대한 아련한 감정과 지극한 사랑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작가가 개성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인물의 다른 성격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것이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설에서 나오는 〈樓東賦〉라든지 〈一斛珠〉 및 唐玄宗의 題詩는 주인공들이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서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해준다.

17) 上披衣, 抱妃藏夹幕间

18) 後祿山犯闕子, 上西幸, 太眞死

### 3. 아단문고 소장의 한글 번역 필사본

#### 1) 국내 유입과 판본

《梅妃傳》이 국내 유입된 시기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다. 《梅妃傳》이라는 제목으로는 아단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한글 번역 필사본이 유일하지만 어떤 원본을 저본으로 삼았는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梅妃傳》이 陶宗儀가 정리한 《說郛》에도 들어있고 清代 간행된 《藝苑掇華》총서에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마도 《說郛》本을 통해 접했을 가능성이 커진다.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들을 살펴보면 아단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번역 필사본 《梅妃傳》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에서 간행된 판본이고 국내에서 간행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梅妃傳》의 유입시기를 《說郛》와 같은 시기로 추정하기로 한다. 국내 남아있는 《梅妃傳》단행본이 없고, 단행본은 한글 번역 필사본만 있으며, 지금 남아있는 《梅妃傳》도 《說郛》本이 가장 많다.

《說郛》는 文言小說 叢書로 元末 明初를 살았던 陶宗儀가 편찬했다. 《說郛》는 《國史經籍旨》 小說家類에 100卷이 기재되어 있고, 《千頃堂書錄》에는 類書類에 《四庫全書總目》에는 雜家類에 포함되었다. 현대의 莫伯驥가 정리한 《五十萬卷樓藏書目錄》에 기재된 것을 보면 弘治9년(1496) 郝文博과 楊維禎이 序文이 있는 郝文博 校正本이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유실되었고, 지금은 明代 필사본 여러 種이 전해지고 있으며, 혹은 “上海後學郝文博校正”이라고 언급한 郝文博校本 계통이 전해지고 있다.

陶宗儀(1321~1407)는 字가 九成이요, 號는 南村이며 浙江 臺州 黃岩 사람이다. 먼 조상은 東晉時代 저명한 시인 陶淵明이라 한다. 아버지 陶煜은 字가 明元이요 號는 道魯山人이다. 榮利를 탐하지 않고 평생을 청빈하게 살았으며 오직 저술하는 일로써 즐거움을 삼았다 한다. 그의 평생 저서는 10여部 수백 卷에 이른다. 《輟耕錄》과 《書史會要》를 제외하고도 《說郛》·《南村詩集》·《國風尊經》·《四書備遺》·《古唐類苑》·《草莽私乘》·

《遊志續編》·《古刻叢鈔》·《元代掖庭記》·《金丹密語》·《滄浪棹歌》·《淳化帖考》 등이 있다. 陶宗儀는 臺州 출신으로는 가장 많은 저작이 《四庫全書》에 수록된 작가로 《說郛》를 완성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病卒하였다.

《說郛》는 野史·수필·經典·傳記·문집·소설 등 정통적인 것이 아닌 진기한 서적 1,000여 종을 抄錄하여 편찬한 것으로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 《說郛》총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첫째는 오랫동안 필사본으로만 전하여지고 있던 것을 1927년에 張宗祥이 이들 필사본 중 6종의 명나라 때 사본을 校訂하여 《明鈔本說郛》 총 100권을 출판하였다. 여기에는 109종의 서적이 수록되어 있으며, 원본에 가장 가깝다. 두 번째는 明末 天啓~崇禎 연간 (1621~1644)에 陶廷이 《重編百川學海》·《續百川學海》·《廣百川學海》·《廣漢魏叢書》·《五朝小說》 등 明代叢書의 版本을 이용하여 1,364종의 서적을 수록한 《重較說郛》 전 120권을 출판하였다. 《說郛》라고 하면, 이상의 2種 총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sup>19)</sup>

국내 가장 이른 기록으로는 고려시대 李穀(1298~1351)의 《稼亭集》에서 찾아볼 수 있다. 雜錄〈李中父가 征東行省에 사신으로 나가는 것을 전송하며 지은 序〉에서 당나라 때에는 관직을 지닌 자는 烏袍를 입고, 관직이 없는 유생은 白袍를 입고, 서민은 布袍를 입었는데, 여기에서 유래하여 백포가 舉人 즉 入試生의 복장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說郛 卷44上 臣庶許服紫袍》의 내용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제16권〈辛巳年(1341) 元日에 감회에 젖어〉라는 律詩에서도 《說郛 卷12 鬱壘》의 내용이 소개되었다. 설날 그믐날 밤과 새해 아침에 폭죽을 터뜨리면 질병을 옮기는 악귀가 그 소리를 듣고 달아난다고 하였으며, 桃符는 두 개의 복숭아나무 판자에다 神茶와 鬱壘의 두 귀신 이름을 써서 만든 부적으로, 邪氣를 막을 목적으로 정초에 이것을 문간에 걸어 두었다는 것이다.

이런 기록을 통해 보면 《說郛》가 국내 유입된 시기는 고려시대 말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유입기록은 없다. 조선시대 허균은 《한정록》에서 《說

19) 寧稼豪, 《中國文言小說總目提要》, 齊魯書社, 1996, 188쪽.

郭》를 여러 차례 인용하고 있고 일찍이 두 해(1614~15)에 걸친 북경사행 길에 4,000여 권의 중국서적을 구입해 돌아왔는데, 《說郭》를 비롯한 명나라 판본 서적 상당수가 구입목록에 포함되어 있다.<sup>20)</sup> 따라서 1610년을 전후로 유입되어 읽혀졌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렇듯 《說郭》은 적어도 17세기 초반에 조선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梅妃傳》역시 그때부터 읽혀졌을 것이다. 비록 문인들의 문집이나 왕조실록 등에 《梅妃傳》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1610년 전후에 유입된 것이 확실해 보인다.

현재 국내 남아있는 《梅妃傳》과 《梅妃傳》이 수록된 판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1)</sup>

書名	出版事項	版式狀況	一般事項	所藏處	所藏番號
미비전		1冊, 筆寫本, 29.2×20.5cm, 半葉 13行字數不定	附錄: 한성 데도비 연합덕전, 당고종 무후연	아단 문고	813.5- 미48
藝苑 摺華 (梅妃傳)	務本堂, 同治 7年 (1868)序	24冊, 木版本, 16.2×11.2,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2.1×9.2, 有 界, 9行20字, 無魚尾	藝苑摺華에 수록되어 있음	奎章閣	[奎] 6192
說郭	陶宗儀(明)纂, 張縉彦(明)補輯, 刊寫地未詳, 宛委山堂, 清板本 (1616-1911)	165冊(10冊), 中國木版本, 22.4×15.3cm	序: 弘治九年 (1496)… 郝文博, 第121冊부터는 續集임	서울대 奎章閣	[古] 4498
說郭	陶宗儀(明)編	本集120卷93冊 (卷101缺), 續集46卷40冊(卷1缺), 合133冊, 木版本, 四周雙邊, 匡郭: 19.5×14.5cm, 有界, 10行20字, 上白魚尾	序: 順治四年丁亥 (1647)王應昌, ……順治三年丙戌 (1646)李際期	延世 大學校	(李源喆 文庫)

20) 임철규, 《조선 문인이 걸어온 길》, 한길사, 2004, 572쪽.

21) 이 표는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 과제인 “한국에 소장된 중국고전소설과 희곡판본의 수집정리와 해제” 중 “한국에 소장된 중국문연소설 판본 목록과 해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작성한 것이다.

說郭	陶宗儀(明)編, 陶珽(明)重輯, 清代刊	零本18冊, 中國木版本, 24.2×15.4cm,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19.2×14.3cm, 有界, 9行20字, 上下向白魚尾, 紙質:竹紙	(18冊:5, 12, 13, 15, 16, 30, 37, 38, 39, 48, 58, 59, 78, 111, 116, 117, 118, 續16)	忠南 大學 附屬校	總·叢書 類-13
說郭	陶宗儀(明)纂, 陶珽(明)重輯	38冊(缺帙), 中國木版本, 22.8×15.4cm,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19.1×13.6cm, 有界, 9行20字 註雙行, 花口, 上下向白魚尾, 紙質:竹紙		全南 大學校	3N4 - 설47ㄷ
說郭	陶宗儀(明)編, 陶珽(明)重輯, 宛委山堂, 清順治4年 (1647)序	121卷118冊, 木版本, 23.2×15.7cm, 左右雙邊 半郭:19.2×13.6cm, 有界, 9行20字, 上白魚尾, 紙質:竹紙		成均館 大學校 존경각	C14D- 0018
說郭	陶宗儀(明)纂, 順治4年(1647)序	160冊, 中國木版本, 24.8×16.3cm	序: 順治四年(1647) …王應昌. 弘治九年(1496) …郁文博	奎章閣	3649
說郭	陶宗儀(明)編	168冊, 中國木版本, 25.1×15.5cm		國立 中央 圖書館	BA古 10-00- 나42

위의 표를 정리하면 현재 남아있는 《梅妃傳》판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아단문고에 있는 한글 번역 筆寫本이다. 이 번역 필사본은 국내 유일본으로서 《미비전》외에도 《한성데도비연합덕전》과 《당고종무후전》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둘째는 奎章閣에 있는 《藝苑掇華》本에 있는 《梅妃傳》인데, 務本堂에서 간행했으며 同治7年(1868)년에 쓰여진 서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판본이 국내 유입된 시기는 19세기 정도로 추정된다.

셋째는 《說郭》本에 있는 《梅妃傳》으로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古]

4498은 弘治 九年(1496)에 쓰여진 서문이 있다. 이 판본이 간행된 연도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清代에 간행되었다고 보더라도 17세기 초반 허균이 구입해서 국내에 유입되었을 것이다. 그 외에도 奎章閣(소장번호 3649)과 성균관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에 順治 4年(1647)에 쓴 서문이 있다. 정확한 유입시기는 알 수 없지만 《說郛》본의 유입시기를 따져본다면 적어도 17세기 중반에는 국내 유입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延世大學校, 忠南大學校, 전남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清代 木版本이 소장되어 있다.

## 2) 한글 번역 필사본

아단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梅妃傳》은 국내 유일의 한글 번역 필사본이다. 필사된 연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필사 시기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 표지에는 《梅妃傳》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고 <매비전> 외에 <한성데도비연합덕전>과 <당고종무후연>이 부록으로 첨가되어 있다. 총 18장으로 되어 있고, 매 페이지는 13행으로 되어있으나, 字數는 일정하지 않다. 궁서체이긴 하지만 흘림체에 가깝게 필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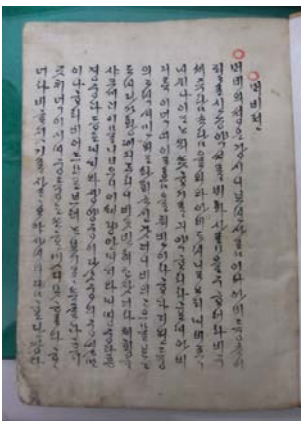


그림 3 <매비전>의 첫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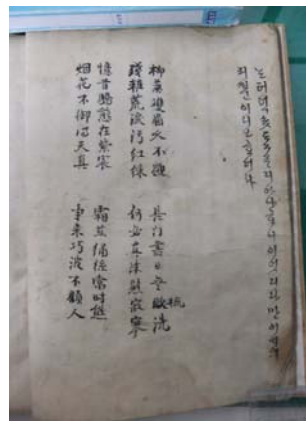


그림 4 <매비전> 끝 페이지

《梅妃傳(미비전)》뒤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은 모두 두 편인데 그 중 하나가 《漢成帝趙飛燕合德傳》이다. 아직까지 작품에 대한 판본, 내용과 번역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어 후속 연구가 기대되는 작품이다. 한글본 《한성데도비연합덕전》의 번역상황을 살펴보면 약간의 흘림체로 되어 있고 13행으로 되어 있으며 2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우 간결하게 번역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작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축역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작품으로 漢代의 伶元이 편찬한 傳奇小說 《趙飛燕外傳》과 宋代의 秦醇이 지은 傳奇小說 《趙飛燕別傳》이 있는데, 이들 작품을 직역한 것은 아니고 다른 판본을 번역했을 가능성이 있다<sup>22)</sup>. 또한 작품의 내용을 필사한 형태로 보아 朝鮮時代 後期에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sup>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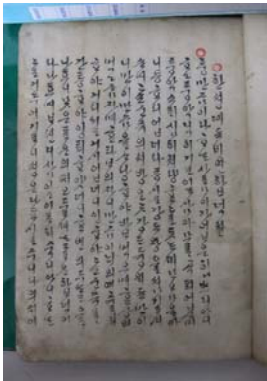


그림 5 부록  
〈한성데도비연합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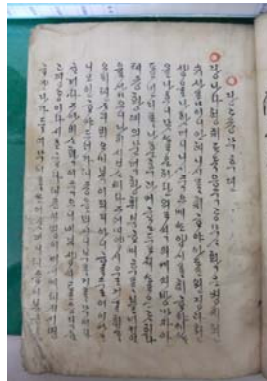


그림 6 부록  
〈당고종무후전〉

- 22) 魯迅이 校注한 《唐宋傳奇集》이나 기타 文言小說集을 살펴보면, 《梅妃傳》과 《趙飛燕別傳》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번역자가 《趙飛燕別傳》을 번역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번역문과 원문을 비교해 보면 체례와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판본을 번역했거나 축역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 23) 한글본 《한성데도비연합덕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작품은 漢나라 成帝 劉鶯(B.C. 52~B.C. 7)와 皇后 趙飛燕과 昭儀 趙合德 자매의 사랑 이야기를 묘사한 것이다. 초반부는 조비연과 조합덕 자매의 親父 馮萬金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어, 아버지의 죽음, 趙氏 성을 얻게 되는 상황과 宮에 들어가게 되는 정황들이 서술되어 있으며 마지막에는 성체와 합덕이 죽은 뒤 庶人으로 강등된 조비연이 황후 된 지 16년 만에 자살로 생애를 마감한 이야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편 중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唐高宗武后傳》역시 아직까지 그 작품에 대한 판본, 내용과 번역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어 연구가 기대되는 작품이다. 한글본《당고종무후전》은 약간의 흘림체로 되어 있고 13행으로 되어 있으며 22장으로 간략하게 필사 번역되어 있다. 현재까지 원전 작품이 발견되지 않아 번역 양상을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간략한 번역 상태로 되어 있으므로 文言小說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된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단정하게 필사한 형태로 보아 朝鮮後期에 번역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sup>24)</sup>

필사자가 정확히 고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왜 이 세 작품을 한글로 번역하고 필사해서 같이 묶어 놓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는 없다. 단지 세 작품의 공통된 특징이 사랑을 주제로 하였다는 점, 그 중에서도 황실에서의 사랑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궁이나 사대부가에서 읽혀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 필사작업은 주로 여성들이 담당했던 상황을 살펴보면 필사자 역시 여성으로 볼 수도 있다.

#### 4. 《梅妃傳》의 번역양상

일반적으로 작품을 필사를 하는 목적은 주로 원문의 텍스트를 정확히 탐독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梅妃傳》과 같은 중국소설은 무심코 지나쳤던 내용을 필사를 통해 더 정확히 해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조선후기에 필사된 소설들은 그런 목적에 의해 필사된 작품들이 많다고 한다.<sup>25)</sup> 현존하는 한글 번역 필사본 《梅妃傳》은 정확히 언제 필사되었는

24) 한글본 《당고종무후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唐나라 太宗 때 荊州都督 武士彠의 딸로 高宗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則天武后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전반적인 내용은 武則天이 형주도독 무사환의 둘째딸로 태어나 14세에 태종의 후궁이 되었다가 다시 高宗의 후궁이 되었으며 이후 女帝로서 권력을 휘두르다가 붕어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황소의 난까지 언급되어 있다.

25) 이지영, 〈한글 필사본에 나타난 한글 필사(筆寫)의 문화적 맥락〉, 《한국고전여성문학

지 연도를 추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필사된 어휘와 문체들을 보면 고어와 신조어가 병용되어 있어 19세기 이후에 필사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 번역된 양상도 직역 및 의역을 한 부분이 가장 많았으며, 음독을 부가하여 운문을 번역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 1) 직역 및 의역

《梅妃傳》은 기본적으로 원전의 글자 하나하나를 번역하는 직역 위주의 번역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한글 고어가 중국어를 직역하여 표현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도입부분을 원문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미비의 성은 강시니 보전(莆田) 사람이라 아버지가 등손이 될손 신농<sup>26)</sup> 약서를  
 변화 사람을 구하니라 비 구세 주남(周南) 소남(召南)을 외와 아버지더  
 내 비록 녀지나 이조노위 뜻허거를 괴약허리라 하미 아버지 기특이녀어  
 일홈을 칩빈이라 하라

梅妃，姓江氏，莆田人。父仲遜，世爲醫。妃年九歲，能誦《二南》，語  
 父曰：“我雖女子，期以此爲志。”父奇之，名之曰采蘋。

매비의 성은 江씨이며 莆田사람이다. 그녀의 부친 江仲孫은 평생 의술을 행하였다. 매비가 9살에 《시경》중에 周文王 后妃의 사적을 다룬 〈周南〉과 〈召南〉을 외우며 부친에게 말하기를 “제가 비록 일개 여자지만 이것으로 제

연구》, 2008, 284쪽~285쪽 참조.

- 26) 神農氏는 상고시대의 신화적 존재로 알려져 있다. 炎帝(火德을 나타냄) 신농씨는 성이 姜(姜水라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인데,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소였다. 風姓을 이어 천자가 된 화제의 왕이다. 신농씨는 처음으로 나무를 꺾어 쟁기를 만들고, 나무를 구부려서 자루를 만들어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사제(12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냄)를 행했고, 붉은 채찍으로 풀과 나무를 쳐서 백가지 풀을 맛보아 처음으로 의약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전설에 의하면 신농씨는 자편이라고 하는 일종의 신비한 채찍을 사용하여 약초의 독성여부와 약효를 알아냈다고 하며 혹은 신농씨 자신이 직접 각종 약초의 맛을 보았다고도 한다.

뜻을 삼겠습니다” 하였다. 부친은 매우 놀라 이 아이가 보통 여자아이들과는 다르다고 느꼈고, 이에 “채빈[채평:采苹]<sup>27)</sup>이라 이름 하였다.

개원 등의 고력사 민(閩), 월(粵)과 회 스신 갖더니 비의 고으믈<sup>28)</sup> 보고 모셔다가 황제기 드리니 빛빈허순 갖더라 제황<sup>29)</sup> 흐샤 크게 괴이믈<sup>30)</sup> 낚으니 이췌 장안 대내와 대명궁과 흥경궁과 동도 대내와 상양궁이라 갖 궁의 궁 일만이나 흐리 비 어드믈<sup>31)</sup> 브터는 보기를 썩줄과 흙궤치 녀이시며<sup>32)</sup> 궁둥도 썩흔 밋디 못홀와<sup>33)</sup> 흐더라

開元中，高力士使閩，粵(越)，妃笄矣。見其少麗，選歸，侍明皇，大見寵幸。長安大內、大明、興慶三宮，東都大內、上陽兩宮，幾四萬人，自得妃，視如塵土；宮中亦自以爲不及。

唐玄宗開元年間에 高力士가 福建과 廣東 일대를 돌아다녔는데, 그때 매비는 이미 15세가 되었다. 고력사는 그녀의 젊고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 궁으로 데려와 당 황제에게 바쳤고, 그녀는 황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 당시 수도였던 長安에는 大內[太極]·大明·興慶이라는 궁전이 있었고 東都 洛陽에는 大內[太初]·上陽이라는 궁전이 있었다. 궁에 있는 궁녀만 해도 4만 명이 넘었는데, 당 황제가 매비를 얻은 후부터 그녀들은 모두 塵土나 다름없었다. 궁에 있는 妃嬪들 역시 자신들이 매비와 비교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비 글 짓기를 잘해야 사녀(謝女)<sup>34)</sup>의 담흔 단장과 아담흔 복식의 비흐

27) 梅妃 이름은 江采蘋으로 알고 있으나 《說郛》本에는 采苹으로 되어 있다.

28) 고으믈: ‘곱다’라는 의미, ‘고음을’.

29) 제회: 뜻이 서로 잘 통하여.

30) 괴이믈→ ‘괴이다’ : ‘사랑을 받다’는 의미.

31) 어드믈: ‘얻다’라는 의미, ‘얻음을’.

32) 녀이시며: 여기다

33) 밋디 못홀와: 미치지 못하다(不及)의 의미.

34) 謝道蘊: 태어난 때와 사망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東晉의 재상이었던 陽夏 謝氏 謝安이 그녀의 숙부이며 그로 인해 그녀의 집안은 동진에서 유력한 가문을 이루었다. 사도은은 어릴적부터 총명하여 문장과 담론에 능했기에 숙부 사안의 총애를 받았다고

되 즈턱(姿態)의 모더고 싸혀나기도<sup>35)</sup> 붓을 가히 그리지 못허리어라 성(性)되 미화를 죽히 녀여 잇는 난간 밧기 여러 조를 심것어라 상이 방(榜) 하야 글오사되 멩정(梅停)이라 하시라 비 멩화 피면 글 짓고 귀경하야 밤이 깊도록 오히려 고출(花) 스랑하야 자지 아니하니 상이 죽히 녀이물 희롱하야 멩비(梅妃)라 하시라 비 통소와 난초와 이원과 멩화와 봉적과 파져 잔과 전도와 김창과 이여곱 가지를 글 지은 거시 잇더라

妃善屬文，自比謝女，淡妝雅服[眼]，而姿態明秀，筆不可描畫。  
性喜梅，所居闌[欄]檻，悉植數株，上榜曰“梅亭”。梅開賦賞，至夜分尚顧戀花下不能去。上以其所好，戲名曰“梅妃”。妃有《蕭》、《蘭》、《梨花》、《梅花》、《鳳笛》、《玻璃》、《剪刀》、《綺窗》八(七)賦。

매비는 문장을 잘 지었는데, 스스로 자신을 썸의 才女 謝道蘊과 비교하였다. 그녀는 열게 화장하고 주로 단아한 옷을 즐겨 입었는데 오히려 그 태도와 용모는 매우 아름다워, 필묵으로 간단히 묘사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녀는 매화를 매우 좋아하여 그녀가 사는 곳 난간의 안과 밖에 몇 그루를 심었다. 때문에 황제는 그녀의 처소에 “梅亭”이라는 편액을 하사했다. 매화가 만개할 무렵이면 매비는 꽃을 감상하며 詩를 짓고, 밤늦게까지 꽃 아래를 배회하느라 떠날 줄을 몰랐다. 황제는 이런 습성을 가진 그녀를 장난삼아 “梅妃”라 불렀다. 매비가 쓴 賦도 〈蕭蘭〉·〈梨花〉·〈梅花〉·〈鳳笛〉·〈玻璃〉·〈剪刀〉·〈綺窗〉 등 7편이나 된다.

전해진다. 내리는 눈을 버들개지에 비교하여 詠雪之才라는 말이 유래되었다. 당시 동진의 대귀족이었던 냥야왕씨 가문의 王凝之와 결혼하였는데 그는 중국 최고의 대서예가 王羲之의 둘째아들이었다. 383년에 일어난 비수전투에서 동생 謝玄이 적을 물리치며 공적을 세우자 동진 최고의 가문을 이루었다. 하지만 385년 숙부 사안이 사망하면서 쇠망하기 시작하였다. 399년 孫恩이 五斗米道 교단을 이끌고 난을 일으켜 會稽(지금의 浙江省 紹興)로 쳐들어오자 會稽太守였던 남편 왕응지가 반란군에게 사망하였다. 사도온은 반란군에게 생포되어 손은에게 끌려갔으나 당당하게 맞서 논쟁을 벌였으며 이에 감탄한 손은이 사도온을 放免하였다고 전해진다.

35) 싸혀나기도 : 빼어나다.

위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번역을 함에 있어 착실히 한 글자 한 글자를 번역했다. 주로 직역 위주의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 없는 부분을 덧붙여 의역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父仲遜, 世爲醫(부친 江仲孫은 평생 의술을 행하였다)”라는 부분을 “아버지 등손이 될손 신농 약서를 빗화 사름을 구하니라”라고 더 첨가하여 번역하였고, “能誦《二南》(능히 ‘二南’을 외울 수 있었다)”도 “주남(周南) 소남(召南)을 외와”라고 구체적으로 풀어놓았다. 비록 의역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원문을 보고 직역한 것이라서 읽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직역한 어휘로 보아 번역하고 필사한 이의 문장 해독 능력도 상당했음을 추정하게 해준다. 다시 중간에 양귀비가 궁에 들어온 부분부터 살펴보자.

마춤 태진 양시 드러와<sup>36)</sup> 피시매 총(寵)과 스랑이 날로 아이여<sup>37)</sup> 상은 비록 소흔 뜻이 업스나 두 사름이 서로 피혀여 길홀 든니되 상은 아황(娥皇) 여영(女英)<sup>38)</sup>의게 비기시니 의[意]는 으는 사름이 날오되 업조비 곳지 아니라혀야 ㄱ만이 웃더라 태진은 새움<sup>39)</sup>을 흐되 지혜만고 비는 성이 부드럽고 이완혀<sup>40)</sup> 미 이기지 못흐느니라 마춤내 잡히여 상양동궁의 올맛더니<sup>41)</sup>

會太真楊氏人侍，寵愛日奪，上無疏忽。而二人相疾，避路而行。上嘗方之英、皇，議者謂廣狹不類，竊笑之。太真忌而智，妃性柔緩，亡以勝，後竟為楊氏遷於上陽東宮。

36) 드러와: 들어와

37) 아이여→‘아이다’: ‘빼앗기다’의 의미.

38) 아황과 여영은 전설 속 요 임금의 두 딸이다. 요임금이 순의 재능과 덕을 높이 평가하여 두 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아황은 왕후가 되고 여영은 왕비가 되었다. 훗날 순이 남쪽으로 순수를 나갔다가蒼梧에서 세상을 뜨자 두 사람도 그곳으로 달려가 모두瀟湘 사이에서 몸을 던져 죽었다. 전하기로는 아황은 상군이 되고 여영은 상부인이 되었다고 한다.

(<http://blog.naver.com/allchina21?Redirect=Log&logNo=130110739763>)

39) 새움→‘새우다’: ‘시기하다’의 의미.

40) 이완혀→‘이완하다’: 부드럽다.

41) 올맛더니 : 옮기다.

후에 楊太眞이 궁에 입궁하자 매비가 받던 총애는 점점 사그러져 갔다. 황제는 그녀에게 소원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매비와 태진 두 사람은 오히려 서로를 질투하여, 길에서 조차 서로 피해 다녔다. 황제는 그녀들을 舜의 두妃였던 娥皇과 女英에 비유하였으나 두 사람의 일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이 비유가 적당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오히려 몰래 비웃었다. 양태진은 질투가 심했고 계락을 쓰는 여인인데 반해, 매비는 성격이 유약해서 태진을 이길 수가 없었다. 결국 태진에 의해 上陽東宮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 단락에서는 ‘寵愛’를 ‘총과 사랑이’라고 하였으며, ‘疏忽’를 ‘소홀 뜻’, ‘議者’ ‘의는 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하였고, ‘英’ 皇’는 오히려 ‘아황(娥皇) 여영(女英)’이라고 자세히 이름을 언급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와주었다.

후의 상이 시름의 낮잠 자시더니 아프시 보니 비 대수풀<sup>42)</sup>을 격하여 울며 눈물을 울먹음고 소매를 7리와 솟최잇를 식인도시호고 날으되<sup>43)</sup> 넷 체해 뜻 글을 넘으시매 첩이 난병(亂兵)의 손의 죽으니 첩을 슬허한 재 첩의 체를 년못 동식 미화나<sup>44)</sup> 것희<sup>44)</sup> 무덧나니이라<sup>45)</sup> 상이 놀나 씬을 흘니고 썩여 명하여 태워지(太液池) 7의 가라 보라하시니 암것도 업거늘 상이 더욱 즐겨 아니하시더니 문득 쇠도라 날으시되 온천탕지(溫泉湯池) 7의 미화 여러문주 이시니 아니 여괴엇는가 하시고 상이 손수 가리이시니 계유 두어두도 지나 시신을 어드니 비단 니불의 차술고조의 너허 무더시되 흠너어 잘홀<sup>46)</sup> 덩헛더라 상이 크게 통곡 하시되 츠마 되미러 보옵지 못허더라 고생헌 고슬 보니 겨드랑 아내 칼 허물이 있더라 상이 손수 글을 지어 태호[태우]시고 비빈 새로이 장(葬)하시니라

後上暑月晝寢，彷彿見妃隔竹間泣，含涕障袂，如花蒙霧露狀。  
妃曰：「昔陛下蒙塵，妾死亂兵之手。哀妾者埋骨池東梅株旁。」上駭然流汗而寤。登時令往太液池發視之，無獲。上益不樂。忽悟溫

42) 대수풀 : 대나무 숲.

43) 날으되 : 이르되.

44) 것희 : 곁에.

45) 무덧나니이라 : 묻었더라.

46) 잘홀 : 자루를

泉湯池側有梅十餘株，豈在是乎！上自命駕，令發現。才數株，得屍，裹以錦，盛以酒槽，附土三尺許。上大慟，左右莫能仰視。視其所傷，脅下有刀痕。上自制文誄之，以妃札易葬焉。

하루는 황제가 낮잠을 자는데 매비가 옆에 있는 대나무 숲에서 울고 있었다. 비록 옷소매로 얼굴을 가렸으나 눈물이 마구 쏟아지는 것이 마치 꽃잎에 이슬방울이 맺힌 것 같았다. 매비가 말하길 “그때 폐하께서 피난 가실 때 저는 亂兵의 손에 죽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연못 동쪽 매화나무 아래 묻어 주었어요”라고 하였다. 황제가 온몸에 땀을 흠뻑 흘리고 깨어나, 바로 사람들을 시켜 太液池 주변을 파서 찾아보게 했으나, 찾지 못했다. 황제는 점점 더 심난해졌다. 문득 溫泉池 주변에 매화나무 10여 그루가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 설마 그곳을 말하는 것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황제는 친히 가서 파라고 명했다. 몇 그루를 파다가 시체 한구를 찾았는데 곁을 비단 이불로 싸서 커다란 술 항아리에 넣고, 윗부분을 3척이나 되는 두꺼운 흙으로 덮어버렸다. 황상이 대성통곡하자, 옆에 있던 사람들 모두 그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애통해 하였다. 매비의 몸에 난 상처를 자세히 보니 갈빗대 아래 칼자국이 있었다. 황제는 친히 제문을 지어 그녀를 추모하였고 비의 예로써 다른 곳에 매장하였다.

이 부분은 본문의 마지막 단락으로, 이 단락 다음에 바로 贊이 이어진다. 위에서 번역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문 중 跋文을 제외한 원문은 이렇게 착실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직역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 부분 다음에 이어지는 贊 역시 마찬가지로 착실하게 번역되었다. 贊 부분은 운문을 번역했을 때처럼 한 줄 내려서 글을 시작하여, 그 부분도 원문에 충실하게 표현하였다.

안타까운 점은 필사자가 필사를 하면서 개인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개 필사본은 필사자의 느낌대로 필사하거나 때로는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필사본 마지막 장에는 반드시 자신의 감상을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작가의 의도는 감퇴시키고 필사자를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매비전》은 전문을 직역 위주로 착실하게 번역함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훼손시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물론 필사자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원본 텍스트를 충실히 반영해 주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음독이 부가된 운문 번역

《梅妃傳》은 번역을 함에 있어 직역에 가깝게 번역하였다. 하지만 시를 번역함에 있어서는 먼저 음독을 해서 이해를 돕고 다시 시 풀이를 해주었다. 이런 번역 상황은 조선후기 번역 필사의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sup>47)</sup> 한글 번역본에서 詩詞를 번역했을 경우에는 먼저 시의 독음을 표시하고 난 이후에 번역을 하고 있어 시다운 정취를 보여주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48)</sup>

《梅妃傳》에는 총 세 편의 시가 나온다. 매비가 현종의 사랑을 다시 얻기 위해 스스로 지어 바치는 〈樓東賦〉와 현종이 매비에게 진주 10말을 하사하자 받지 않고 시와 함께 되돌려 보낼 때 지은 〈一斛珠〉와 마지막으로 환관이 현종에게 매비의 초상을 그려 바쳤는데, 현종이 그 그림위에 매비를 그리는데 구절을 적어 넣은 詩가 전부이다. 이 운문 시의 경우 역자이자 필사자는 음독을 부가하고 운문을 번역해주는 방법을 취하였다. 併記를 함에 있어서도 운문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음독을 부가하고, 다시 처음부터 해석을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필사는 여기에서 편의상, 음독한 부분과 번역한 부분을 나란하게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매비가 스스로 지어 황제에게 바쳤다는 〈樓東賦〉를 살펴보도록 하자.

### 〈樓東賦〉

옥감의 진생(玉鑿塵生)이오	옥거울의 툇글이 <sup>49)</sup> 날
봉심의 향진(鳳奩香珍)이라	봉그린 장심의 향이 스라지도다
난선빙지교소(懶蟬鬢之巧梳)하야	막암의 귀밧홀 죽이 빗기를 게어르니

47) 《紅樓復夢》뿐 아니라, 《瑤華傳》, 《경화연》등 당시 한글 번역 필사본의 경우, 詩詞를 필사했을 경우 먼저 독음을 달고 다시 번역을 하였다.

48) 김명신, 〈낙선재본《紅樓復夢》의 번역양상〉, 《중국소설논총》, 제21집 2005.

49) 툇글이 : 티끌이

한누의지경련(閒縷衣之輕練)이라

고적막어혜궁(苦寂寞於蕙宮)하야

단응스호난전(但凝思乎蘭殿)이라

신표낙지미화(信標落之梅花)여

격장문이불견(隔長門而不見)이라

황내화심양흔(況乃花心颺恨)하고

뉴안농슈(柳弄弄愁)로다

난풍습습(暖風習習)이오

춘도축축(春鳥啾啾)로다

누상황혼혜(樓上黃昏兮)여

턴봉취이회슈(聽風吹而回首)하씨

벽운일모혜(碧雲日暮兮)여

딕소월이응미(對素月而凝眸)로라

온천불도(溫泉不到)호니

억습취지구유(憶拾翠之舊游)하고

장문심폐(長門深閉)호니

차청난지신쉬(嗟靑鸞之信修)로다

억태의청파(憶太液清波)에

슈광탕부(水光蕩浮)하고

싱가상연(笙歌賞宴)

비중신뉴(陪從宸旒)하야

주문란지묘곡(奏舞鸞之妙曲)하미

승화악지선쥬(乘畫鷁之仙舟)하야

군정건권(君情縷縷)하야

심서쥬슈(深敘綢繆)하니

서산회이상재(誓山海而常在)하미

스일월이무휴(似日月而無休)서니

하고

슈노훈 오시 가보야이 단장하기랄

드므리하느도다

고존이 혜궁의 적막히 이겨라

단 난전의 생각하미 어리엿도다

진실로 표락하 미화여

장문<sup>50)</sup>은 격하여 보디 못하느도다

하물며 이에 고척 마음은 혼을 늘리고

버들눈은 시름을 희롱하느도다

어은 바람은 습습하고

봄 새 축축 하느도다

누우회 황혼 씨의

풍취를 둘 머리를 두루 혀며

푸른 구름의 날이 저물미여

흰 달을 디하여 눈물이 어리엿도다

온천의 가지 못하니

푸른 것 좇는 옛 놀기를 생각하고

장문을 깊히 다드시니

청난의 신이 먼 주소를 슬허 하느도다

태의 청파의

물 빗치 탕부하고

싱가 상연의

신뉴를 피와

국차 문안의 문흔 두도를 주하며

화악의 선쥬를 타니

군의 정이 건권하야

깊히 쥬슈하물 베프시니

미와 바다를 땡세하야

얼시 이시며 회돌 곳터 비업리라

하씨어니

50) 한무제 때 진황후의 장문궁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매비가 자신을 진황후와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매비가 있는 상양궁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하질식용용(奈何嫉色庸庸)하여  
 투기퉁퉁(妒氣沖沖)하야  
 탈아지애행(奪我之愛幸)하고  
 척아호유궁(斥我乎幽宮)  
 사구환지막득(思舊歡之莫得)이라

상몽착호몽능(想夢著乎朦朧)이로다  
 도화도여월석(度花朝與月夕)의  
 슈란되호춘풍(羞懶對乎春風)하라  
 욕상여지주부(欲相如之奏賦)라  
 내세촌지불공(奈世才之不公)  
 속수음지미진(屬愁吟之未盡)하야  
 이향동호소중(已響動乎疏鐘)이라  
 공장탄이엄매(空長歎而掩袂)하고

주리보우누둥(躊躇步於樓東)이라

엇디엇디 지물 미워하느 빗치 용용하며  
 새우<sup>51)</sup>는 기운이 퉁퉁하야  
 나의 사랑과 고이몰<sup>52)</sup> 앓고  
 날을 곱흔 궁의 내쳐서  
 내 즐거운 일을 칭각하되 엇디  
 못하느니라

칭각하난 꿈은 어심뜻하되 부춧도다  
 솟핀 아적과 들봄은 나죄를 지내미  
 봄벼람 뒤하기를 붓드려<sup>53)</sup> 흘와  
 상여의 부 드리기를 하고저 하나  
 세상 죄지 하수롭지 아니하미  
 엇지를 시름하야 음기를 맞디 못하야  
 불셔 쇠진<sup>54)</sup> 봄(복)소리 들리는 도다  
 속절업시 깊이 한숨 지며 소매로  
 낫출 7리오고  
 누동석회 거름을 머뭇머뭇 하엿더라

우선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다. 「옥거울 위에는 먼저 가득하고, 화장갑엔 향기조차 없어요. 게을러져 아름답게 꾸미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옷조차 차려 입을 수도 없어요. 적막하고 우울한 날들이 계속되니, 차가운 궁에선 시름만 깊어갑니다. 장문궁은 임의 처소와 지척이거늘, 당신은 볼 수조차 없어요. 꽃도 내 마음 같은지 한이 서려 흩날리고, 버들잎도 수심 담고 하늘거립니다. 따듯한 바람이 부니 봄새들은 울어 대고, 황혼은 쓸쓸히 누대를 비추며, 바람을 맞으며 고개를 돌립니다. 황雲도 해를 따라 지며 공연히 明月을 원망하네요. 다시는 온천에서 목욕할 수 없으니, 봄에 같이 즐겼던 일만을 생각합니다. 단혀 있는 이 깊은 장문궁에는 파랑새도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는군요. 태액지(太液池)의 맑은 물결 생각하니, 물빛은 빛나고 篔가락 울려 퍼졌죠. 항상과

51) 새우→‘새우다’ : 시기하다.  
 52) 고이몰(괴이몰)→‘괴이다’ : 사랑을 받다.  
 53) 붓드려 : 부끄러워  
 54) 쇠진→‘성기다’ : 성긴.

함께 〈舞鸞〉곡을 연주하고 畫鷁 仙舟에 올라탔어요. 군주의 정 끝없이 이별하기 힘들어, 산과 바다처럼 영원히 사랑하자고 맹세했었지요. 해와 달이 그렇게 영원히 사랑하듯이! 어째서 누군가의 질투로 저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이 차가운 궁에 가두어 두셨나요. 지난날의 즐거움이 다시 올 수 없으니, 다할 수 없는 그리움을 꿈속에 담아 둡니다. 아침저녁 할 일없으니, 가을비 봄바람 대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사마상여가 賦를 바친 것처럼 하려했으나, 세상의才子들 詩筆조차 좋지 않군요. 수심 가득할 뿐 다 쓰지도 못했는데, 아침 종소리 들려옵니다. 긴 탄식과 흐르는 눈물 참을 수 없어 樓東을 천천히 배회합니다.」

번역자는 이 부분의 운문을 번역함에 있어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음독을 부가해주고 그 작품이 끝나면 다시 번역을 해 주었다. 내용은 司馬相如의 〈長門賦〉를 모방하여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장문궁의 陳皇后를 매비 자신에게 비유해서 충애를 잃은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담아, 잃어버린 현종의 사랑을 다시 찾고자 했다. 이 부분을 번역함에 있어서도 비교적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였으나 習習(8쪽:12행), 庸庸(9쪽:9행), 沖沖(9쪽:10행) 등의 단어는 원문의 음독 그대로 “습습ㅎ야”, “용용ㅎ여”, “통통ㅎ야”로 번역해 주었다. 조선후기에 운문 번역은 대체로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대개 여성들이 필사에 참여했을 경우 번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음독을 달아주는 방향으로 필사를 하였는데, 《매비전》의 상황을 보면 음독도 하고 다시 번역을 충실하게 해 주었다. 비록 소설의 내용은 여성독자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짙어 보이지만, 번역의 양상을 보면 한문 해독에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는 《一斛珠》와 매비의 초상에 현종이 직접 써 넣은 詩를 살펴볼 도록 하겠다.

#### 《一斛珠》

뉴엽쌍미구불묘(柳葉雙眉久不描)ㅎ니  
잔장황뉴오홍취(殘妝和淚污紅綃)라  
장문진일무소세(長門自是無梳洗)ㅎ니

하필진유원적막(何必珍珠慰寂寞)요

버들잎 갓흔 눈접울을 그리니 아니흐니  
쇠잔흔 장이 눈물의 화하야 붉은 깃을 어리이는도다  
장문의 날이 뭇도록 세척흐미 업스니  
엇지 반드시 진주를 보내여 적막흐를 위로흐리오

버들잎 두 눈썹 오랫동안 그리지 않고, 남은 화장 눈물에 젖어 두건조차 붉게 되었다. 장문(매비)이 스스로 꾸미기를 포기했거늘, 어찌 진주로 적막함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매비의 현종에 대한 심정이 그대로 담겨있다. 《樓東賦》를 보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현종이 양귀비의 눈치를 보면서 진주로 자신을 달래는 모양새가 달갑지 않을뿐더러 진주로는 달랠 수 없는 입을 향한 외로움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의문점은 ‘장문진일무소세(長門自是無梳洗)흐니’에서 ‘진일’이라고 한글로 표기한 부분이 있는데, 원문에서는 ‘自是’라고 되어 있다. 《說郛》本을 보고 번역 했다면 분명 ‘자시’라고 음독을 달았어야 한다.<sup>55)</sup> 해석을 보면 ‘장문의 날이 뭇도록 세척흐미 업스니’라고 하여 번역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환관이 그려준 매화를 들고 있는 매비의 초상에 덧붙인 네 구의 詩를 살펴보자.

〈매비 그림에 덧붙인 시〉  
억석교비재자신(憶昔嬌妃在紫宸)흐니  
연화불어득천진(鉛華不御<sup>56)</sup>得天眞)이라  
상초슈스당시틱(霜綃<sup>57)</sup>雖似當時態)나  
쟁내교파불고인(爭奈嬌波<sup>58)</sup>不顧人)고

55) 《설부》본의 《매비전》을 실은 《中國古典小說鑑賞辭典》의 원문을 보면 분명 ‘長門自是無梳洗’라고 되어 있음(中國展望出版社, 1981년).

56) 鉛華不御: 不用脂粉等化妝品

57) 霜綃: 畫幅

58) 嬌波: 指眼神

옛 교비 자신(紫宸)의 이실계를 생각하니  
 연지와 분을 뜨지아나도 하늘 진짓식을 어뎃더니라  
 서리 늦은 그림이 비록 당시의 틱도 늦으나  
 교퇴를 물결 늦은 눈의 사름을 도라보지 아니흐매 엇지흐리오

교비가 자춧빛 침소(紫宸)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니, 얼굴에 화장기는 없어도 정말 순수했었다. 그림 속의 모습이 비록 그녀와 닮았다 하나, 눈빛이나(현중)를 보지 않고 있으니 어찌 하겠는가! 이 부분의 번역도 음독하고 번역을 하였는데, 번역을 함에 있어서도 비교적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당시 한글 필사본의 주 독자층인 여성들이 어려움 없이 해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상으로 위에서 《梅妃傳》에 나오는 세 편의 운문을 모두 살펴보았다. 이처럼 운문을 번역할 때, 읽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먼저 음독을 제시하여 주고, 음독이 다 끝나는 부분에 다시 우리말 번역을 제시하여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번역자는 한자의 해독능력이 뛰어나았을 뿐 아니라, 직역을 하더라도 감정을 살려 번역하는 글재주도 지녔다. 필사된 글씨체를 보더라도 물론 약간의 흘림체이긴 하지만, 간혹 정갈한 궁서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필사된 고어의 사용정도와 글씨체의 정도로 보아 적어도 19세기에는 번역되고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번역자가 어떤 판본을 저본으로 삼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設郭》本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梅妃傳》뒤에 있는 跋文만 번역되어 있지 않고, ‘贊’까지 비교적 자세히 번역하였다. 아마도 원문을 보고 읽어가면서 번역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5. 맺음말

본 논문에서 필자는 우선 《梅妃傳》跋文의 내용을 근거로 창작시기와 작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물론 南宋代에 쓰여져서 후에 曹艱이라는 인물에 가탁했을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발문에 쓰여진 大中 2년 7월에 쓰여졌

다는 기록에 의거해서, 필자는 唐末 曹勣이 《梅妃傳》을 창작했을 것이라는 說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국내 유입되었을 정황과 시기를 고찰함에 있어 《說郭》가 국내에 유입되었을 시기를 추정하여 《梅妃傳》의 유입시기를 살펴 보았다.

《說郭》는 가장 이른 기록은 고려시대 말에 보이지만, 남아있는 판본이 없어 추정하기 어렵고, 지금 남아있는 기록들에 의해 허균이 중국 사신으로 가서 책을 구입해 왔던 시기인 1614년에서 1615년에 국내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梅妃傳》은 단행본으로 남아있지 않고 국내에서는 《藝苑掇華》本과 《說郭》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說郭》의 국내 유입이 곧 《梅妃傳》의 유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국내 소장되어 있는 《梅妃傳》판본을 세 가지로 나누어 《藝苑掇華》本과 《說郭》本, 아단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한글 필사본 《梅妃傳》을 살펴보았다.

특히 아단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번역 필사본은 뒷 부분에 부록으로 《한성데도비연합덕전》과 《당고종무후던》이 번역되어 있다. 아단문고 소장의 한글 필사본 《梅妃傳》은 짧은 단편이라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번역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째는 “직역하고 의역”한 부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직역을 위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충실히 번역했다. 간혹 의역한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역자가 해독에 도움을 주고자 덧붙인 것들이고, 많은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운문을 번역할 때는 “음독을 부가해서 운문 번역”을 하였다. 운문 한 글자 한 글자에 음독을 붙여 나열하고 독자를 위해 처음부터 다시 번역 해주었다.

《梅妃傳》은 단편소설이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필사본도 18장의 짧은 소설로 되어있다. 단행본이 없었던 작품인데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說郭》에 실려있는 많은 작품 중에서 왜 《梅妃傳》을 번역했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 없으나, 번역 필사자는 상당한 문장 해독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을 것이다. 한 글자씩 직역을 했다는 점, 원문에 나오지 않은 부분까지 의역하여 추가하였다는 점, 음독을 부가하여 운문 번역을 하였다는 점 등은 그런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梅妃傳》뿐 아니라 뒤에 부록으로 있는 《한성데도비연합덕전》과 《당고종무후던》도 같은 글씨체임을 감안해 본다면 한 사람이 번역하

고 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내용으로 보아 여성 필사자인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필사가가 기록을 남기지 않아 누가, 왜 황제와 비의 사랑 이야기 세편을 번역 필사 해 놓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앞으로 이 부분까지 연구해서 그 관련성과 의도를 연구해 보다면 더 가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藝苑掇華》, 《說郛》, 《한성데도비연합덕전》, 《당고종무후년》

❖ 참고 문헌

- 《매비전》 아단문고 소장 한글 번역 필사본 (분류번호 813.5-믹48)  
劉淑雙, 〈《인현왕후전》과 《매비전》 대비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年.  
寧稼豪, 《中國文言小說總目提要》, 齊魯書社, 1996年, 188쪽.  
《中國古典小說鑑賞辭典》, 中國展望出版社, 1981年, 孟蓬英 解題.  
魯迅 著, 조관희 역, 《중국소설사》, 소명출판, 2004年.  
임철규, 《조선 문인이 걸어온 길》, 한길사, 2004年.  
최용철 외, 《중국소설사의 이해》, 학고방, 1997年.  
程杰, 〈關於梅妃與《梅妃傳》〉, 《南京師範大學大學院學報》, 2006年 9月 第3期.  
陳春陽, 〈鄭樵《通志二十略》中的《梅妃傳》素材〉, 《福建師範大學福清分校學報》, 2010年 第4期.  
章培恆, 〈《大業拾遺記》《梅妃傳》等五篇傳奇的寫作時代〉, 《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8年 第25卷 第1期.  
이지영, 〈한글 필사본에 나타난 한글 필사(筆寫)의 문화적 맥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08年.  
김명신, 〈낙선재본《홍루부몽》의 번역양상〉, 《중국소설논총》제21집 2005年.

강태영(아단문화기획실), 《아단문고 장서목록》, 아단문화기획실(비매품), 1996年.

매비전 원문 : 《中國古典小說鑑賞辭典》, 中國展望出版社, 1981년(《說郛》本).

<http://baike.baidu.com/view/137940.htm>

❖ ABSTRACT

Dissemination of the Tale of *meifeizhuan*  
to Korea and its Translation Practice

Yoo Hee June · Min Kuan dong

In the course of completing a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project, I recently found that a handwritten Korean manuscript of *The Tale of Mei Fei* is kept in the Adan Collection, which is a significant scholarly discovery given that no relevant research is available. The editions of the *Tale of Mei Fei* available in Korea include 《藝苑摛華》 edition, 《說郛》 edition, and the handwritten manuscript in Korean collected in the Adan Collection. Being the only handwritten Korean translation of the work, the *Tale of Mei Fei* in the Adan Collection was appended by the translations of 《한성데도비연합덕전》 and 《당고종무후년》. As for the practice of translation of the work, literal “word to word” translation was done for the most part of the text; some sentences were occasionally translated liberally. Also, as for the poems in the text, pronunciation of each Chinese character was provided along with the translated text.

---

Keywords

*The Tale of Mei Fei*, Adan Collection

논문접수일: 2012. 05. 15

심사완료일: 2012. 06. 08

게재확정일: 2012. 06. 15